우리 모임에선

마하네트 정기총회

대한불교 아마추어무선사회(Maha Net, 회장 이상현)는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서 불자햄 단합과 홍보를 겸한 모임을 갖는다.

이번 모임에서는 마하넷트 4차 정기총회와 다과회를 갖고 불교아마추어 무선사회 모임현안과 99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준비 기획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018-316-4682

심우회 신병교육대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3일 강원도 21사단과 2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하여 불자장병들을 위문할 예정이다. 이날 심우회는 21사단, 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위문법회를 개최하고 대중공양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 011-744-2539

한편 심우회는 11월 29일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외정부 기무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에게 대중공양하고 보일러를 보시했다.

금융단 연꽃마을 방문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하용이)는 11월 29일 연꽃마을을 방문하여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위문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금융단불자연합회는 이날 연꽃마을에 연료비도 전달했다.

하이텔 불동 부경법회

하이텔 불교동호회 부산·경남법회(지역장 유보현화)는 5일부터 6일까지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부경법회를 봉행한다.

부경법회는 극락선원 명정스님을 친견하고 백운암 자장암을 탐방한 뒤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불교라이온스클럽 자비심는 봉사활동 '신바람'

동불 장학사업 · 복지시설 후원
반야 탑골공원 무료급식 도와
붓다 이웃돕기 · 자연보호 앞장

불교계 라이온스클럽의 활동이 활발하다.

국제라이온스클럽에 불교라이온스클럽은 동국 백상 동경 동불 송죽 한마음 반야 붓다등 1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들 불교라이온스클럽은 '봉사'를 주제로한 라이온스클럽 이념에 교리적으로 가까워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창립한 동불라이온스클럽(회장 윤천수)은 2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제라이온스클럽 하나바란타 회장과 회원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354지구 제1지역(부총재 김성호, 불교미술관 관장) 환영식에 참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현재 C지구 안에는 동국대 학부출신으로 구성된 동국라이온스클럽을 비롯하여 백상, 동경, 송죽, 한마음 라이온스클럽이 있는데 이들 라이온스클럽은 라이온 모토인 봉사대열에 참가하며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와 불자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불교복지시설에 물심양면의 지원도 하고 있다.

또 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강학일)은 무진장스님을 법주로 매달 법회를 개최하며 불교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초 탑골공원에 노인무료급식소를 개원, 종로구청에 기증하기도 했다. 반야라이온스클럽은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조계사청년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붓다클럽은 도내에 3개 클럽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장 역량있는 사회단체로 성장했다.

붓다클럽은 불교발전을 위한 기원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웃돕기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성호 354지구 1지역 부총재는 "봉사에 대한 체계를 갖춘 라이온스클럽에 들어가 활동함으로써 보시자비의 불교정신에 기반한 신행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며 "라이온스클럽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데 반해 불교라이온스클럽은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국대 제주대와 학술교류 협정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1월24일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제주대학교(총장 조문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교육 및 연구 등 학술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양교간 상호협력과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수 및 연구자의 교류 △학생교류 △학술정보·학술자료의 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은시인 초청 만해사상 강연회

만해사상실천회 대경지부(지부장 이영창)는 21일 대구 진각빌딩 7층에서 고은시인 초청 만해사상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해사상 강연회에는 보광선원 및 표충사· 조실인 임화산스님 서지월시인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정은하씨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고은시인은 강연을 통해 "만해스님이 말씀하신 '임'은 중생과 부처 혹은 윤회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불심투혼으로 방콕亞대회 '금' 발원

한마음불자회 국가대표 환송법회

'불심투혼으로 다시한번 방콕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쾌거를 이룩하겠습니다.'

24일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수덕사 포교국장 경학스님, 지도법사 환호스님을 비롯 한마음불자회(회장 정용균) 회원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 후원으로 '98 방콕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한마음불자 환송법회가 봉행됐다.

고진숙선수(사격)의 헌화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수덕사 사회국장 진섭스님은 법문을 통해 "청정한 믿음의 발원이 성실한 승리의 씨앗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며 "물러섬이 없는 용맹정진의 정신으로 경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궁 이은경, 레슬링 심권호, 유도 정성숙 조인철, 사격 이은철 한현진, 볼링 김수경, 배드민턴 라경민, 수영 이보은선수등 금메달 유망주들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선수들은 촛불의식을 하며 부처님전에 발원문을 낭독하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또 중앙승가대학 선재스님은 찬불축가를 독창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방콕 아시아대회에 출전하는 불자선수를 격려하는 환송법회가 24일 열렸다.

이은경선수는 "연습시 정신집중이 안될 때나 승부의 고비마다 참선과 독경으로 이를 극복했다"며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국민과 불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청소년 포교 소책자 '오늘의 내가…' 펴내

광주 · 전남교사불자회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회장 김진택)은 '불교속의 주머니' 여섯번째 포교책자로 '오늘의 내가 어제의 너였어야'를 발간했다.

이 청소년 포교책자에는 '공양은 회향이다' '염불도 공덕이다'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꿈은 꿈일 뿐이다' '모양은 허망하다' '수고하세요' '예절은 건강이다' 등 1백24쪽에 45개 주제의 글이 실려있다.

김진택회장은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이 작은 책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지만 불교입문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문의 (062)573-8811

장상문거사 6주기 추모법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 초대사장을 역임한 중원 장상문거사의 제6주기 추모법회가 지난달 21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돈각, 불교방송 사장 성낙승,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배명인, 연합철강 사장 이철우, 대원사 대표 장세우, 중앙신도회 회장직무대행 김한곤 등을 비롯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탐방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맑은 마음 밝은세상 가꿔요"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11월 25일 부산시민회관에서 법정스님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94년 창립…회원 1200명
자연보호 · 양로원 위문
음악회 · 명사 강연회도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보여준 승려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11월 25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흥교, 본부장 박수관)이 마련한 초청강연회에 참석한 법정스님은 이렇게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또 "맑고 향기로운 삶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소함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개개인의 실천을 당부했다.

5천여 불자와 시민들이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을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이 대중과 생활속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모임임을 반증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94년 4월 KBS홀에서 4백30여명의 회원으로 법정스님 초청강연회를 갖고 출범했다. 이후 법정스님을 회주로 우리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청정한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보호하고 사랑하자는 범시민운동을 벌여왔다. 5년이라는 길지 않은 연륜 동안 정기적 재정후원회원, 비정기적 재정후원, 자원봉사회원 등 가입회원만도 1천2백명에 달하는 범시민단체로 성장했다.

그간 94년 맑고 향기롭게 음악회, 95년 맑고 향기로운 우리집 만들기 법정스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금정산 자연보호운동, 경주남산 생태기행,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스티커 나누어 주기, 양로원 방문, 무의탁 노인 방문 등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향기로운 삶을 가꾸는 활동에 힘을 모아왔다. 또한 월 1회 홍교스님 성오스님 점명일 거사 등 명사초청 강연회를 통한 회원들 마음 맑히기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회원관리를 위한 '맑고 향기롭게' 회보를 소책자로 만들어 발송하고 봉사활동 지원자를 수시로 모집하며 맑고 향기로운 연꽃을 피워가고 있다. (051)898-267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여래선원 봉불점안 및 수계법회

위빠사나 전문 수행도량인 대구 여래선원(선원장 법산, 수성구 범어동)은 22일 석가모니불 봉불점안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미얀마에서 가져온 불사리도 함께 봉안됐다. 여래선원은 한국불교대학을 개설, 매주 화·목요일 근본불교 경전인 대념처경과 위빠사나 실수행법(觀法)을 지도하고 있다.

종단의 질서 회복과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현 조계종단 사태에 대한 재가의 입장

승가의 제일 덕목은 화합이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은 지혜와 자비 정신일진데 작금 종단의 잇따른 분열과 폭력사태는 종도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종단의 존립을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짓닫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대중은 두려움과 고통에 허덕이며 종단과 승가에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놀랍고 충격적인 사태를 맞아 우리 재가불자들은 이제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에서 떨쳐 일어나 불퇴전의 신심과 애종심으로 자신을 추스리며 종단 질서의 회복과 승가의 화합을 위해 破邪顯正의 기치로 正法을 받들고 승가의 화합을 축구하며 종단질서를 회복하는 대정진의 길로 용맹정진하여 나갈 것을 서원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위배되는 그 어떤 폭력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 총무원 청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종단사태를 극도로 악화시킨 정화개혁회의는 즉각 청사에서 물러나고 해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적 공의 없는 폭력적 청사 회복 방식도 반대한다.

-. 원로대덕, 선원 수좌, 본·말사 주지, 승가대학의 학인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승가대중은 합심협력하여 大衆公議에 입각하여 조속히 사태를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

-. 종단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가까운 시일 안에 재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여 <재가정진법회>를 개최하고 문제 해결의 원력을 드높여 나가자.

-. 무소유와 대중공의의 원칙을 존중하고 수행과 교화에 정진하시는 스님들을 적극 공양, 예경, 후원하고, 폭력과 도박, 비리에 연루된 파계승들을 전국의 불자들에게 공개하고 예참, 참법, 공양하지 않는 운동을 벌여 나가자.

-. 종단과 사찰 운영을 투명화하고 재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삼보정재의 남용을 막고 사부대중 공의에 입각한 종단과 사찰 운영이 되게 하여 종단분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불기 2542('98)년 11월 25일

▶ 참가단체

전국 교사불자회 / 대불련 총동문회 / 우리는 선우 / 자비의 전화 / 조계종 원우회 / 삼보법화(사) / 보리 방송 모니터회 / 대불청 서울지구·경기지구 / 금강정사 신도회 / 수원포교당 신도회 / 석왕사 신도회 / 봉은사 신도회

▶ 서명자 현황(가나다순)

개운사 4명, 경기불교대 16명, 공주신원사 2명, 금강정사신도회 105명, 금강정사청년회 54명, 금산사 6명, 길상사청년회 3, 대각사청년회 16명, 대구정법회거사림 2, 대불련총동문회 2명, 대전불교대학 9명, 동국대불교대학 2명, 동산반야회 28명, 동산선원 2명, 만해불교대학 3명, 방생선원 4명, 범주사불교대학 2명, 보현불교대학 5명, 보현회관 6명, 봉선사 5명, 봉선사 불교대학 8명, 대한불교삼보회(사) 2명,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102명, 파라미타교사(사) 3명, 심원사 5명, 수덕사 2명, 수원포교당 9명, 신흥사 2명, 용화사 2명, 원우회 70명, 이화여고 9명, 전국교사불자회 42명, 정혜사 4명, 종단협의회 2명, 정량사청년회 7명, 정주용화사 3명, 한국스카웃불교지도자회 3명, 한국관음회 2명, 화계사 신도회 18명, 서울지구 소리바라기 9명, 봉은사 199명, 노적사 9명, 석왕사 신도회 64명, 보광사 10명, 장림사 신도회 57명, 우리는 선우 241명, 현재 1,144명

불교 바로서기를 염원하는 지성인 461인 선언

불교가 중생구제와 사회안성의 종교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사부대중 모두의 철저한 역사적 반성과 부처님 가르침의 대승적 실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땅의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펴는 어엿한 모습의 불교로 서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조계종 종권의 쟁취를 목표로 일부 건승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사태의 악순환은 재가불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한국불교의 위상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승가는 달라져야 하고, 불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가르침 따로 행 따로라면 그 가르침이나 종교는 이미 개인이나 사회를 이끌어 갈 힘이 없는 죽은 가르침이며 종교이다. 해방 이후 종권다툼으로 얼룩진 불교 현대사의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지금 과감히 끊어버려야 한다.

이에 우리 재가불자들은 사부대중의 일원으로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참회 정진함과 동시에, 종단질서와 불교위상의 조속한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뜻을 밝힌다.

-. 승가대중은 수행과 교화의 본연의 임무에 전심전력함으로써 국민과 재가불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화합 정진하라.

-. 종권에 집착한 일부 소수 권승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뼈를 깎는 참회와 무소유의 출가정신으로 돌아가 대중공의와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금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 수습하라.

-. 폭력은 반불교적 행위이다. 폭력을 묵인, 방조, 비호, 이용하는 그 누구도 불교를 와해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재가불자들은 폭력과 관련된 파계승에 대해 승보로서 공경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 종권을 둘러싼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재정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승가 자체의 자정능력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 재가불자들은 정법을 받들어 불교를 바로 세우는 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불기 2542년(1998년) 11월 26일

서명동참 재가불자 일동

불교 바로서기를 염원하는 '지성인 461인 선언' 동참자 명단

● 학계: 222명
강광식, 강건기, 강석헌, 강신표, 강혜묵, 강용옥, 강혜근, 고진호, 고 현, 고형일, 고홍선, 곽 근, 곽만연, 곽종형, 권순국, 권정희, 김광수, 김기언, 김길홍, 김동수, 김무봉, 김병기, 김상달, 김상영, 김선부, 김성구, 김성일, 김성규, 김새곤, 김승태, 김신재, 김연주, 김연규, 김영길, 김영동, 김영성, 김영철, 김영현, 김옥진, 김용운, 김용택, 김용환, 김유철, 김은수, 김응철, 김인숙, 김재윤, 김재하, 김재호, 김재홍, 김재홍, 김정기, 김정희, 김종서, 김종순, 김진범, 김진성, 김진택, 김 철, 김철호, 김춘남, 김태균, 김한식, 김현곤, 김형목, 김혜숙, 김혜숙, 노부호, 노영재, 노태천, 도정일, 도홍렬, 류승무, 류종민, 류 황, 목정배, 문선정, 미영순, 민태진, 박광서, 박창섭, 박범훈, 박석희, 박선영, 박승희, 박영희, 박태화, 배의용, 배춘상, 변상현, 사재동, 서인선, 서혜경, 성기서, 성기태, 성낙도, 성찬용, 성태용, 소광섭, 송위지, 송해균, 신송훈, 신준식, 심재룡, 심정옥, 안규철, 안근석, 안기섭, 안상수, 안원영, 안진오, 양영옥, 엄극현, 연규방, 연기영, 오석근, 오세호, 오원배, 오종근, 오종진, 오출세, 오형근, 우준호, 우희종, 유 영, 유예근, 유필화, 윤범모, 윤석성, 윤세원, 윤원철, 윤정희, 이경운, 이근후, 이기향, 이달원, 이동환, 이 만, 이표희, 이무상, 이미숙, 이병인, 이봉춘, 이상만, 이석종, 이성도, 이수기, 이숙희, 이승준, 이영경, 이영덕, 이영복, 이우신, 이윤재, 이인자, 이임수, 이종철, 이주형, 이준규, 이준성, 이준일, 이준표, 이천배, 이춘기, 이평래, 이화자, 이화형, 이회재, 임종권, 임 립, 임승빈, 임종화, 임현수, 임홍빈, 위계율, 장호경, 장휘옥, 정원수, 전병영, 전보삼, 전재근, 정각동, 정경연, 정기웅, 정병조, 정용순, 정천구, 정혜영, 정호영, 정환담, 조갑제, 조대우, 조영진, 조영옥, 조학래, 조홍식, 최경구, 최규성, 최용기, 최우영, 최정달, 최종세, 최준하, 최효식, 하수경, 한광수, 한복용, 한석수, 한종수, 허남진, 허문기, 허윤근, 호문혁, 홍동식, 홍성심, 홍종림, 황순구, 황순효, 황선주, 황진수, 황택성, Roland Woerle/Chon

● 법조계: 40명
고영준, 고형규, 곽동효, 구상진, 김창수, 김춘봉, 김형준, 김홍근, 김홍현, 김회옥, 박병규, 박성귀, 박성호, 박용일, 박원순, 박주언, 박홍우, 배만운, 소준영, 송두환, 안동일, 오육환, 용태영, 유효봉, 이용복, 이은기, 이홍한, 이중광, 전창렬, 정극수, 정영일, 정재헌, 조영환, 조현우, 최기만, 최재덕, 한명식, 한윤수, 황용식, 황해진,

● 언론출판계: 21명
강신철, 공종원, 김대곤, 김병규, 김영일, 김정자, 김형균, 김회균, 박순철, 신광식, 신도성, 안길모, 유자효, 윤창화, 이재홍, 이동식, 이두석, 이영일, 이은윤, 이 정, 최정희

● 문인: 12명
강옥구, 고 은, 김정빈, 남지심, 류시화, 방귀희, 백금남, 이만희, 이상우, 장연수, 정찬주, 황청원

● 문화예술계: 34명
강강원, 강형원, 권인호, 김상섭, 김성녀, 김양수, 김영만, 김영배, 김은성, 김종례, 김형섭, 두시영, 문인상, 박찬갑, 박홍순, 변지희, 서보동, 손기종, 손진석, 손희옥, 안창헌, 오유례, 이덕환, 이선옥, 이인옥, 이주숙, 임무상, 장상희, 정세학, 조 민, 최영식, 현 정, 홍기자, 황남재

● 의료계: 29명
강만춘, 곽종구, 김과연, 김두원, 김성문, 김성철, 김세원, 김승웅, 김연호, 김유신, 김유진, 김일수, 김종화, 김태균, 김대진, 문희범, 박재익, 박정일, 방홍기, 송성선, 신상진, 이종화, 이정섭, 윤상희, 장연복, 전상천, 전성태, 주기선, 한영애

● 법사단: 40명
고우식, 권지홍, 김경복, 김기훈, 김영수, 김재엽, 김재일, 김종하, 김종환, 김진택, 김철회, 김태영, 남상돈, 남재진, 노혜광, 박우열, 선진규, 송영길, 신근식, 신상철, 안경수, 양진교, 오상현, 오수산, 오용도, 오태갑, 우인보, 이득수, 이준희, 이치란, 이하우, 임신교, 임혜인, 정병웅, 조철구, 조호징, 한기한, 한인수, 한징섭, 황하룡

● 교육계: 43명
강영철, 권재호, 김권환, 김귀중, 김명옥, 김상만, 김옥경, 김원수, 김한수, 김해동, 김형숙, 류구자, 박경자, 박동자, 박종희, 봉정춘, 서성만, 서수영, 손기환, 신광철, 신동선, 신동영, 안재식, 엄범순, 오세만, 이명희, 이영일, 이용의, 이종일, 이진태, 이호영, 임달환, 임완수, 임창홍, 장두순, 전심희, 정혜숙, 조건균, 조농연, 조돈연, 조재환, 추연수, 최필영

● 사회활동가: 20명
강인성, 김택호, 김성재, 김수열, 김재일, 문형원, 박남철, 박덕일, 박동건, 박희철, 손혁재, 여익구, 윤용숙, 이진아, 이혜숙, 장기표, 정성일, 전민자, 최만재, 허종원,

총인원 461명